

百濟時代의 工藝

— 土器를 중심으로 —

鄭 明 鎬

I、序

百濟의 工藝에서 特別히 注目되는 種類는 흙을 素材로 하는 用器를 비롯하여 建築用材인 瓦磚類等의 土製工藝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土製工藝品중에 容器는 生活必需品으로써 매우 일찍이 開發된 分野이다.

百濟의 土器는 新石器時代文化가 꽃피었던 漢江流域을 비롯하여 錦江流域、榮山江流域、萬頃江流域을 근거로 이루어져 있었다.

百濟土器 製造技術의 先行하는 新石器時代의 代表的인 土器인 簡文土器는 타래쌓기(Coining)技法에 의해 그릇의 벽을 쌓은 후 표면에 여러 종류의 幾何學紋裝飾을 線刻한 다음 露天窯에서 酸化焰으로 구워낸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는 特別한 道具를 使用하지 않고 손전히 손으로 빚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技法으로부터 점차적으로 革新을 보게 되었으니 이는 勞動力의 증가와 社會構造의 필요성에 따라 靑銅器時代에 이르러 급격한 발전을 보아 왔다. 즉 물레와 같은 廻轉具인 기계를 창안 이용하는 동시에 製作道具인 도개, 근개, 방망이, 홍관, 수레 등을 使用하여 無紋土器 혹은 그릇표면을 곱게 하는 磨研技法등을 개발하였다.

또는 그릇표면에 문양 효과를 내기 위하여 무늬를 陽刻한 수레로 그

릇 표면을 두들겨 繩文을 裝飾한 壺와 같은 器形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技法을 계승받은 百濟土器는 酸化焰의 원시적인 기술에서 탈피하여 還元焰으로 구워내는 地下構造 혹은 半地下構造의 가마를 開發하여 低溫에 구워내는 軟質赤褐色土器를 비롯하여 高火度に 구워내는 陶質 혹은 炔器의 硬質灰青色土器①를 생산하였다.

한편 靑銅器時代에 발생된 종류로서 貂族의 根據地였던 山東半島에서 발생한 黑陶技術의 영향을 받은 高句麗系의 僞黑陶技法도 진승하였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背景하에 製造된 土器의 質과 燒成度에 의한 종류는 軟質赤褐色土器、硬質灰青色土器、黑陶系土器、陶磁 등의 四種으로 大別되고 있다.

이들의 그릇 중에 首位를 차지하고 있는 종류로는 壺를 들 수 있다. 壺의 종류 중에는 卵形과 球形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바닥은 圓底、平底、足臺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란모양은 靑銅器時代 이전부터 유행되었던 器形을 답습한 보수적인 技法과 양식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공모양은 계란모양으로부터 일부 발달한 양식으로서 밑이 좁은 계란모양의 그릇은 일정한 곳에 고정시킬 때 항상 불안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과 用器의 기능성에서 요구된 모양이라 하겠다.

아울러 用器는 어디까지나 收藏의 목적을 갖는 까닭에 좀더 많은 量을 用積하며 오래도록 保存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연히 실용적인 것으로 개선 발전한 모양이다.

그릇의 種類로써는 食器類인鉢、盆、瓶、貯藏具인甕、壺、祭器類인器臺(坩臺)、高杯(三足器)、시루(甑)、橫缶、文房具、甌、異形器、葬具인骨壺、甕棺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이와같이 多種多樣하게 발전된 用器는 어디까지나 日常生活用器에서 출발하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에 앞서 이들의 발판은 宗教的인

儀式을 위한 祭器의 필요성에서 부터 開發, 發展되었다고도 하겠다.

이와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百濟時代에 文獻資料中에 하는 과 당에 있는 神과 五帝神 또는 始祖神 등을 祭祀 지냈던 壇과 廟를 세운 사실을 三國史記祭祀條와 百濟本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卷第三十二 雜志第一 祭祀條 百濟項에 의하면

百濟每以四仲之月 王祭天及五帝之神 立其始祖仇台廟於國城 歲四祠之 라 하였으며 古記에 依하면

溫祚王二十年春二月 設壇祠天地 云云

多婁王二年春正月 謁祖東明廟 云云

의 記事와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古余王條

五年正月 祭天地用鼓吹

등의 資料를 비롯하여 三國史記 卷第三十二 雜志第一 祭祀樂條에서도 百濟樂器와 舞服과 舞冠 등의 裝置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곳에서 祭祀를 지내는데 있어서 儀式用樂器인 鼓吹 즉 북과 管樂器類를 사용한 사실을 볼 수 있으나 祭器의 種類와 器形에 對하여는 밝힌바 없음을 유감스럽다. 또 祭物로서 술(酒)을 사용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 祭酒로 사용된 술은 神과 人間과의 뜻을 맺어주는 神聖한 聖水라는 데서 貴히 여겨지는 음식물이다. 술은 特殊階級 이외도 百姓들 사이에 釀造術이 보급되었던 사실을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多婁王條

十一年秋穀不成 禁百姓私釀酒

라한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으나 술을 담그는 施設과 種類를 밝히지 않은 것도 유감스런 일이다. 多幸히 現在까지 發見된 遺物中에 三足器, 卮臺, 瓶, 壺, 蓋 등의 器形을 淸작하여 볼 때 技能上 祭器인 가능성이 농후하며 甕類는 釀酒를 위한 發酵器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祭禮器外로서 貯藏具 혹은 調味料發酵器와 같은 生活必需用器

에 대한 資料를 百濟關係文獻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나 新羅 측 資料인 三國史記 卷第八 新羅本紀 第八 神文王條에

三年春二月 以順知爲中侍 納一澹金欽運 小女爲夫 先差伊澹文顯波珍 澹三光定期 以大阿澹知常納采 幣帛十五擧 水酒油蜜醬鼓脯醢醢一百 三十五擧云云

한 句節이 있는 것으로 미루워 百濟에도 調味料가 있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왜냐하면 百濟의 領域內에서 發見된 用器類中에 米穀과 酒醬을 담았던 甕類와 油蜜, 酒를 담았던 瓶等 新羅의 用器類와 同型의 것이 發見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飲食物의 種類 또는 水準을 비교하여 볼 때 嶺南地方과 幾湖地方의 飲食의 調味料와 醬類가 월등히 多種多樣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淸조할 때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社會的인 發展과 社會構造에 의한 必要性에 따라 創案 開發하였던 土製工藝의 變遷과 樣式에 對하여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II

漢江流域을 中心으로 京畿道와 江原道에 散在된 百濟初期文化의 所産인 土器資料가 一九六〇年 以後에 이르러 급작히 많이 밝혀지므로써 百濟人의 土製工藝技術狀과 生活發達狀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②.

現在까지 밝혀진 百濟土器의 種類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赤褐色軟質土器를 비롯하여 灰青色硬質土器, 黑色磨研土器, 陶磁器, 등으로 大別되고 있다. 赤褐色系容器 中에 赤褐色軟質土器는 全時代에 걸쳐 生産된 作品으로서 材料는 비교적 왕모래와 有機質이 많이 含有되어 있는 질(胎土)을 使用한 질그릇(瓦質)系이다. 이 질그릇系 土器中에는 치밀하고 精選된 良質의 질을 使用한 것도 있다. 이 軟質系 질그릇은 吸水性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대체로 七〇〇~八〇〇度の 酸化焰으로 구워진 것으로 表面色은 赤褐色 혹은 黃褐色을 띠고 있다. 특히 赤褐色軟質系



圖 1. 深鉢 (春川校洞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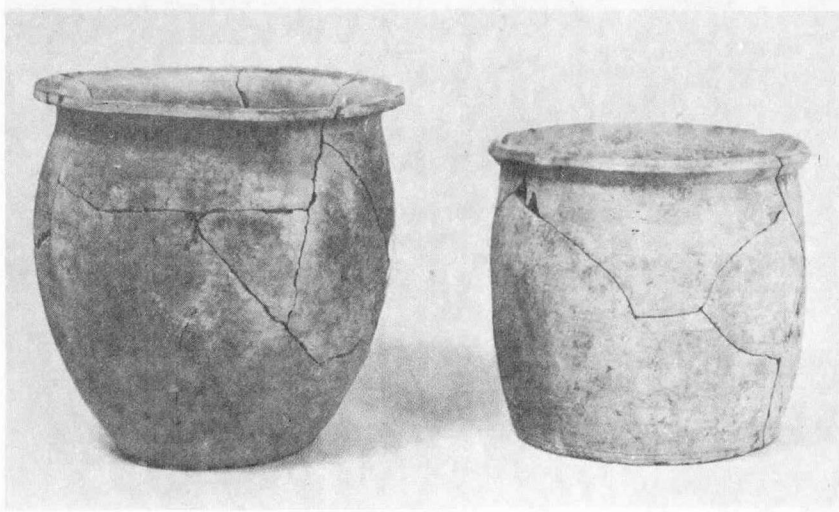


圖 2. 鉢 (鎮海市熊川貝塚出土, 高麗大學校博物館)



圖 3. 鉢 (高麗大學校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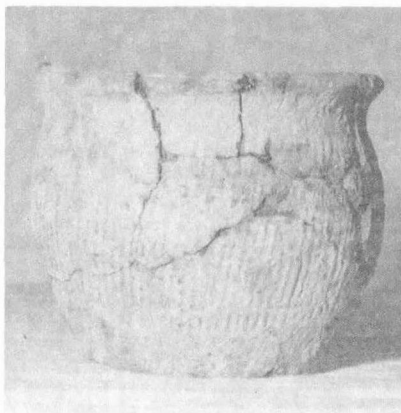


圖 4. 鉢 (서울江東區芳莢洞出土)

土器는 百濟全期를 통해 出土되며 漢江流域을 中心으로 分布된 初期古墳에서는 硬質土器보다 比較的 많은 種類가 눈에 드인다. 한편 中期以後에 속하는 遺跡인 錦江流域을 비롯하여 萬頃江, 榮山江 蟾津江流域等에서는 軟質系보다 硬質系土器가 主流를 이루고 있음은 注目된다.

赤褐色軟質系土器의 形態와 種類로써 漢江流域을 中心으로 이룩된 百濟初期작품으로는 粗質有文廣口平底鉢, 粗質有文卵形圓底壺, 把手付有文甕, 盤, 蓋, 短頸長胴壺, 雙耳付短頸長胴壺, 把手付甕, 盤 등의 十餘種을 들 수 있다. 한편 錦江流域을 중심으로 생산된 赤褐色土器로는 有文廣口平底鉢과 短頸扁球形圓底壺 등의 二種이 보이며 萬頃江 榮山江 兩

流域에서는 短頸扁球形圓底壺、坏、長頸球形平底壺等の 三種에 赤色系 土器가 發見되고 있다.

이와같이 各流域에 따라 나타난 資料들 중 漢江流域에서는 十餘種의 容器가 發見되고 錦江流域에 있어서는 二種類가, 萬頃·榮山兩流域에서는 三種으로 減少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같이 同系の 色을 갖으면서 地域과 時代를 달리하면서 器形의 樣式과 質의 繼承이 거의 없는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우선 器形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一、粗質有文廣口平底鉢

廣口平底鉢系의 土器는 深鉢形과 廣口短鉢形인 盥의 二系列로 구분할 수 있다.

이 系統의 土器는 이미 新石器와 青銅器時代부터 發生 開發된 類形으로써 百濟時代에서도 繼承되어 初期에 該當되는 時期에 出現되고 있다③.

1. 廣口深鉢形平底鉢(圖1~4)

이 系統의 土器는 春川市 校洞에서 出土된 土器群을 비롯하여 青銅器時代(圖1)의 無文土器系중에 類似形이 廣州郡 東部面 漢沙里發見된 口形土器、大田市 槐亭洞 出土 深鉢形土器、迎日郡 杞溪面出土 深鉢形土器、扶餘郡 松菊里出土品、牙山郡 白岩里出土 深鉢形土器、清原郡 飛下里出土 深鉢形土器와 北韓 慈江道 時中郡 豐龍里出土 黑色雙耳壺 등에서, 또 이것이 發展 變形된 樣式이 金海貝塚에서 發見되었다.

이와같이 發展된 深鉢形土器는 百濟時代 初期에 該當되는 時期에 限해 나타난 모양으로서 서울江東區 風納里 百濟城址內의 遺物包含層에서도 發見된 바 있으며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二號墳과 서울 江東區 石村洞三、四號墳附近에서도 出土되었다④.

이 土器의 모양은 바다(밀창)은 평평하고 배가 약간 부른 듯하며 목이 길어지면서 가법계 外傾하며 올라가다가 입술(口緣)에 이르러 거의 수평으로 外反하는 器形을 보이고 있다.

또한 法泉里와 石村洞에서 發見된 토기의 表面에는 繩蓆紋을 彫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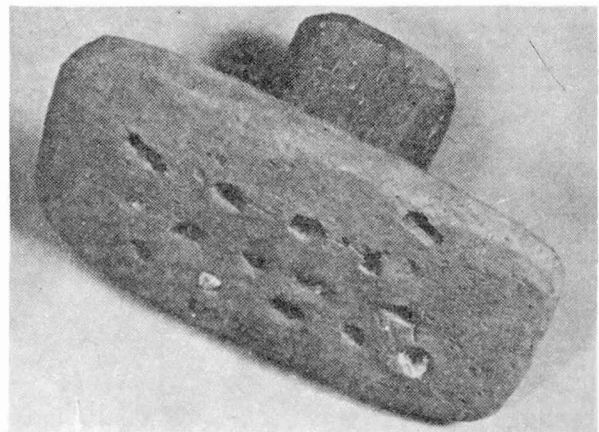


圖 5. 漢灰陶土器(樂浪出土)

한 도개 或은 수대로 打撈한 후에 흙갈로 平行橫條를 들렸다. 또한 그릇 빛 같은 灰白 또는 褐色을 띄고 있으며 壁心은 黑色을 들어내고 있다. 前者의 口徑은 一一·八cm, 높이는 一一·七cm이며 後者는 口徑 一七cm, 높이 二〇cm, 復徑 二二cm 인 작은 그릇이며 이 土器形은 平北 龍川郡 新岩里遺蹟에서 發見된 櫛文土器중의 壺形器와 平北 寧邊郡 細竹里 遺蹟에서 出土된 無文土器중 深鉢形器에서 發源된 모양이다.

이 그릇의 용도에 대하여는 명확치 않으나 두 손으로 잡고 운반 이동하기에는 작지만 한 손으로 겨우 잡을 수 있는 것이며 한 손으로 그릇을 잡을 경우五指로 입 언저리를 잡을 수 있으며 또는 엄지손가락을 그릇목 밖에 내놓고 나머지 손은 그릇 속에 넣어 그릇목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릇에 담은 물건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곡식같은 것을 담기가 편리하게 입이 넓으며 또한 밀이 평평하여 잘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이곳에 담은 물건은 오래도록 저장하도록 마련된 그릇은 아닌 것 같아 수시로 쓰이는 것을 담은 듯하다.

1. 廣口短鉢形碗(大接)

廣口形短鉢形土器는 大接形의 盥으로써 新石器時代 遺蹟인 咸鏡北道



圖 7. 雷文鉢(咸鏡北道清津市松坪區域農圃洞出土)



圖 6. 櫛目文鉢(咸鏡北道清津市松坪區域農圃洞出土)



圖 9. 黃褐色碗(鉢)(서울 九宜洞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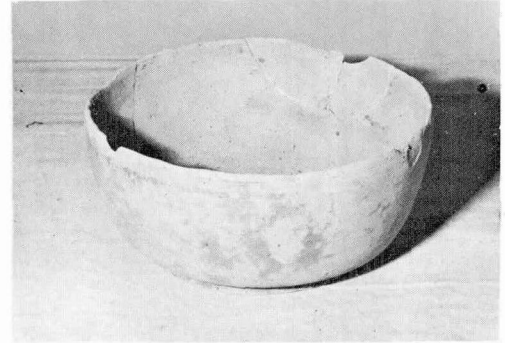


圖 8. 赤色鉢(忠南扶餘郡草村面松菊里出土)

清津市 松坪區域 農圃洞에서 두 종류가出土되었다⁵⁾。이 遺蹟에서 發見된 鉢은 表面에 櫛目文과(圖 6) 雷文을(圖 7) 裝飾한 것으로 器形은 약간 다르다。雷文을 裝飾한 土器는 鉢形이며 櫛目文을 裝飾한 그릇은 大接 모양의 鉢으로서 이는 食器인 국그릇으로 보인다。

이 系統의 土器類形은 無文土器時代 遺蹟인 扶餘郡 草村面 松菊里와 서울 江東區 可樂洞 住居址에서 現代式 砂器大接 모양의 것이 發見된 바 있으며 可樂洞遺蹟에서 發見된 土器系에서 發達되었다고 볼 수 있는 系統이 九宜洞遺蹟에서 二種類가 出土되었다⁶⁾。이 들은 精選된 胎土로 구워진 黃褐色碗으로써 其一은 낮은 굽이 달린 平底이며 높이 三·九 cm 口徑 九·七 cm、底徑 七·六 cm、其二是 역시 같은 質의 精選한 바닥 굽(胎土)을 써서 구운 그릇으로 굽을 갖추지 않은 平底로 安定感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릇 몸 중앙이 가장 넓으며 口緣部에 이르러는 오히려 들고 있다。높이 五 cm、口徑 一·二·三 cm、底徑 八·八 cm(圖 8·9)

二、粗質有文卵形圓底壺

大形の 壺로써 吸水性이 높은 軟質로 華城郡 麻道面 白谷里와 서울江東區 可樂洞古墳에서 發見된 것이 있다。

前者는 完形이 아니지만 大략 높이는 三六·四 cm、口徑 一六·四 cm、腹徑 二四·四 cm、壁厚 〇·四 cm 되는 것으로 밑은 尖圓形이며 그릇의 腹部가 가장 부르며 목이 긴 듯하다。表面에는 繩蓆紋으로 裝飾한 후 平行橫條를 돌렸으며 색깔은 褐色 혹은 黃灰色이다。製造技法은 泥재기(粘土帶)를 만들어 積輪法을 썼고 機具는 原始形 물레인 廻轉板(Turn Table)을 利用한 듯하다。

後者는 長卵形으로 밑은 둥글고 몸은 별로 부르지 않으며 목은 작고 입술은 外反하였다。全面에 繩蓆紋을 도개로 찍었으며 색깔은 赭色을 띄고 있다。이 그릇은 甕棺으로 보인다。

三、把手付有文壺

圓球形의 그릇몸에 짧고 外反된 입술을 구비하고 배쪽 한쪽에 소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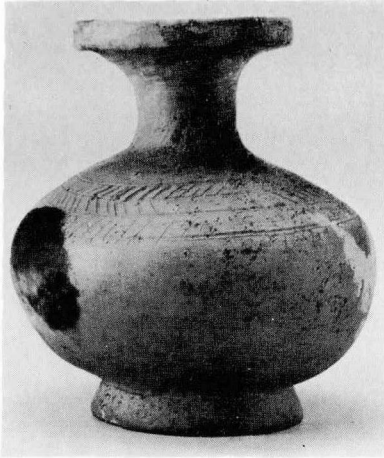


圖 11. 瓶 (서울城東區九宜洞出土)

낮은 굽이 달려있는 작은 瓶으로 漢의 銅器 모양과 비슷한 것으로써 배는 부르나 밑과 어깨부분이 납작하며 긴 목에 달린 口緣은 垂直의 태를 이루고 있다. 어깨에는 네 줄의 陰刻平行線을 돌리고 線間은 上下方向을 달리하는 平行斜線으로 메꾸었다. 그릇의 바닥은 높은 모래가루가 섞인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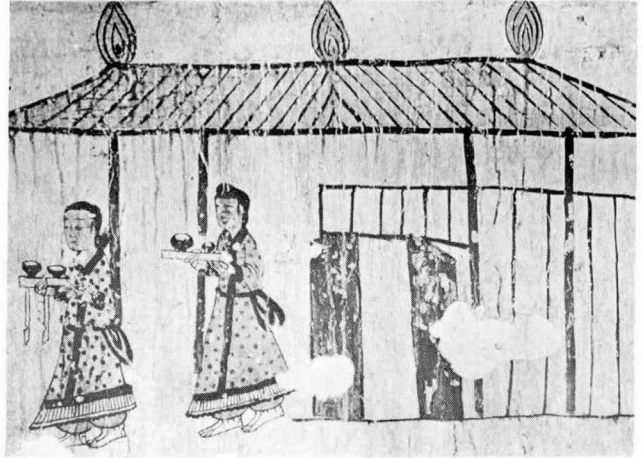


圖 10. 把手付壺(서울江東區石村洞出土)

양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몸전체에 格字文을 찍어 裝飾하였으며 빛깔은 赭褐色을 띠고 있다. 그릇크기는 높이 二一 cm, 腹徑 二六·四 cm, 口徑 一三·八 cm, 底徑 一二 cm 이고 廣口形으로 비교적 安定感을 주고 있다. 서울江東區石村洞破壤墳에서 발견되었다.

四、小瓶(圖 11)

表面을 곱게 磨研하였으며 빛깔은 黃褐色을 띠고 있으나 一部에는 黑色의 斑點이 남아 있다. 높이 一一·八 cm, 口徑 六·五 cm, 底徑 六·一 cm, 서울 九宜洞 百濟 初期古墳에서 發見되었다⑦.

五、土製蓋(圖 12~14)

九宜洞에서 發見되어 注目되는 土製뚜껑으로써 거의 모래가 섞이지 않은 精選된 粘土를 使用한 無文軟質土器이며 表面의 색깔은 赤褐色을 띠고 있다. 六個分이 出土되었는데 형태는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⑧. 其一是 뚜껑 등 중앙에 長方形의 土帶로 된 耳形(環狀)把手가 달려있는 것으로 이러한 모양은 漢式壺나 高句麗系壺의 손잡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其二是 뚜껑 左右에 半圓形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으로 其一과 같이 등이 평평하다.

이는 항아리 뚜껑으로 使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盤으로도 使用할 수 있어 萬能의 容器라 하겠다.

六、短頸長胴壺(圖 15~16)

이 壺는 胴體部가 매우 길며 頸部가 짧고 입이 넓은 平底의 瓶形壺이다. 口緣部가 外反된 軟質赤褐色無文壺이다⑨.

七、雙耳付短頸長胴壺(圖 17)

平底이고 胴體部가 길며 어깨 部分은 曲線을 이룬 위에 목이 짧고 입술은 外反되었다. 이 壺는 瓶形壺로서 腹部 左右兩側에 長方形의 帶狀耳形 손잡이를 橫으로 附着하여 두 손으로 잡아 올리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 壺의 손잡이 양식이 高句麗의 兩耳壺와 유사함은 주목된다⑩.

이 그릇의 形態를 보아 容器의 技能은 液體性物質을 담는데 편리하게 考案되었고 운반하기 좋도록 손잡이가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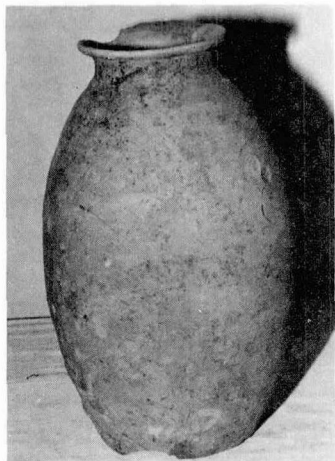


圖 15. 短頸長胴壺



圖 16. 短頸長胴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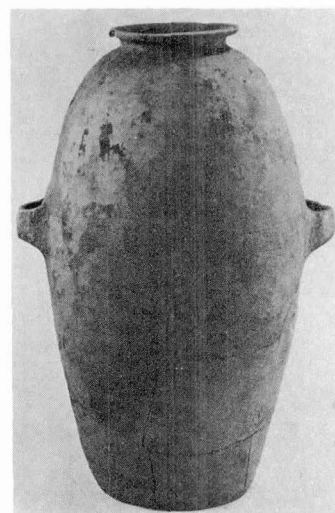


圖 17. 雙耳付短頸長胴壺



圖 12. 環狀把手附土製蓋 (서울城東區九宜洞出土)



圖 13. 把手附土製蓋 (서울城東區九宜洞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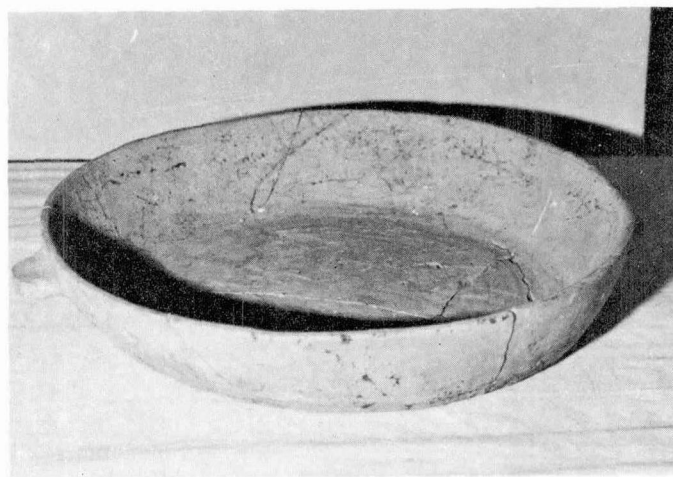


圖 14. 土製蓋內部 (上同)



圖 18. 시루(飯) (서울城東區九宜洞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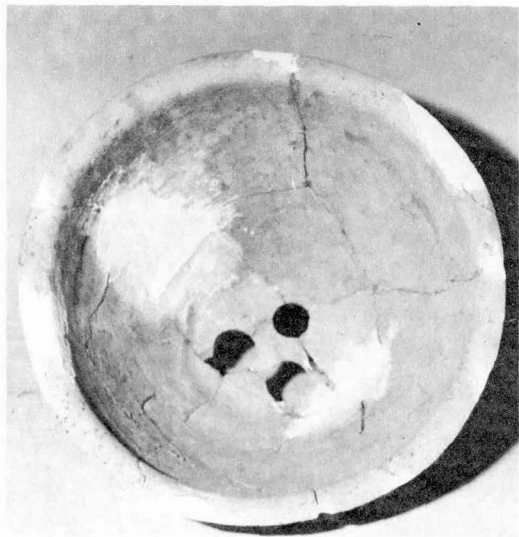


圖 19. 시루 內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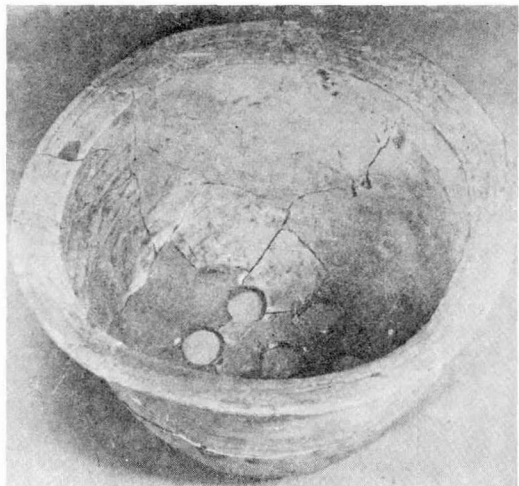


圖 20. 시루 (平壤樂浪土城址出土)

土器의 바닥 홈은 미세한 모래가 섞인 것을 使用하였고 表面은 고운 흙을 바른 후 물가죽으로 곱게 다듬었으며 색깔은 黃褐色을 띠고 있다.

八、把手付시루

黃褐色軟質의 平底시루로 廣口에 口緣은 水平의 帶를 달아 내었고 腹部左右에 牛角形 손잡이를 水平에서 약간 下向하도록 달았다. 胴體中上部에 不規則한 三條線紋을 들렀으며 바닥에는 원형의 큰 구멍을 세 개 뚫어 놓았다. 바닥 홈은 모래가 섞였고 器表에 比하여 內壁은 거칠게 처리하였다(圖 18·19)①②.

이와같은 그릇은 일찍이 樂浪土城址로 부터 發見된 바 있으며 安岳三號墳의 壁畫에서 유사한 시루를 찾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現代式질 그릇의 시루와도 같아 注目된다.

九、土製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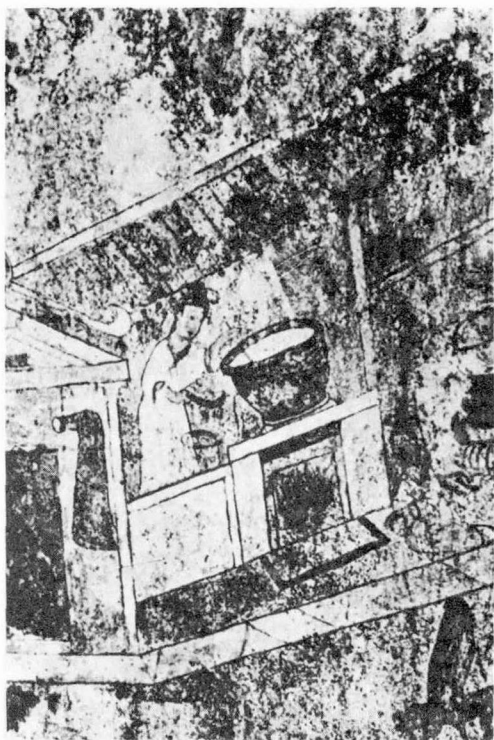


圖 21. 安岳三號墳高句麗壁畫

平底에 낮은 口緣이 있는 赤褐色을 띤 軟質의 그릇이다.

一、〇、黑色環狀瓶

環狀의 圓筒管으로 만든 후 한쪽에 外反된 口緣의 注口가 달린 瓶이다^⑫. 이는 휴대용 물병 혹은 酒瓶으로 使用할 수 있는 것이다(圖22). 이와 유사한 것이 慶北에서 出土되었다(圖23). 環狀이기 때문에 이 위에 圓底의 壺나 甗를 올려놓는 器臺用으로도 使用할 수 있는 것이다. 高一·三cm 口徑七·二cm

서울城東區 九宜洞 出土

以上과 같이 十餘種의 容器를 들 수 있는 데 器形으로 보아 대부분 新石器時代 末期에 發生한 器形을 비롯하여 靑銅器時代 그리고 漢式과 特別 高句麗系樣式을 계승하고 있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직 北方系 民族의 특징이 殘存하고 있음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한편 百濟가 文周王以後 錦江 流域으로 根據地를 옮기면서 현저하게 赤色系土器가 감소되나 容器 형태를 繼承하고 있는 器形은 廣口深鉢形 平底鉢로써 論山郡 新興里 古墳에서 出土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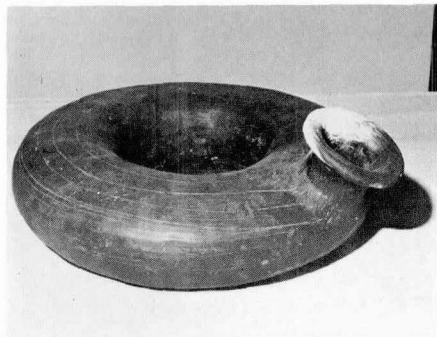


圖 22. 環狀瓶 (서울城東區九宜洞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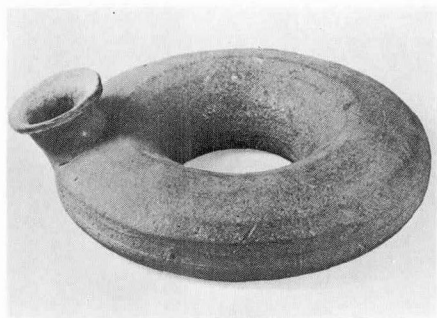


圖 23. 環狀瓶 (慶北出土)

公州遷都 以後에 繼續 나타나는 赤色系土器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一、有文廣口平底鉢

漢江流域에서 盛行하였던 粗質有文廣口平底鉢의 系統을 繼承한 그릇 모양으로써 바닥은 良質이며 질그릇系이다. 表面은 繩紋과 格子紋을 彫刻한 수대로 찍어서 裝飾하였고 바닥은 평평한 平底에 배가 부르며 肩部에 올라가면서 縮少된 후 口緣部에 이르면서 外反하였다. 口緣에는 凹線이 施紋되어 特徵을 보이고 있다.

높이 一二·三cm、口徑 一三cm、底徑 九cm

二、牛角形把手付甗(圖 24·25)

中國戰國時代의 土製甗과 유사한 모양을 보이는 것으로 牛角形의 把手를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蓋를 덮을 수 있도록 口緣部에 턱이 있는 점이 中國式과는 다르다. 全面略化된 繩紋으로 裝飾한 圓底의 深鉢形 그릇으로써 下部에 三足を 달았으며 中國系甗같이 날선하지 못한 것이 흠이라 하겠다. 製造技法은 타래쌓기로 물래를 사용하였으며 그릇속은 간단하게 마감질을 하였다. 牛角形손잡이 角部는 위로 向했으며 口緣 中央에는 一條의 線刻을 하여 燒成에 支障이 없도록 하였다. 色은 赤褐色을 띠고 있다.^⑬

이 容器의 出處는 명확치 않으나 論山附近의 連山地方으로 推定된다.

三、短頸扇球形圓底壺

直立된 짧은 목이 달리고 몸통 윗부분이 옆으로 벌어진 軟質의 圓底 壺로써 表面은 無文이고 어깨부분에 혹은 左右에 붙인 것이 特徵이며 바닥은 약간의 굽은 모래가 배합되어 있으나 고운 편이다(高三〇cm 胴徑 三六·五cm 口徑 一七·五cm 底徑 六cm). 이 그릇의 出土地는 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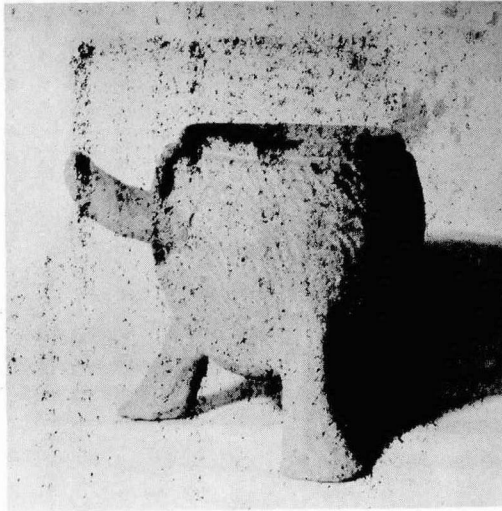


圖 24. 牛角形把手附鼎 (忠南連山出土)



圖 25. 牛角形把手附鼎

百濟時代 全期
를 통해 쓰여진
土器로 灰青色 硬
質土器를 들 수 있
는 데 이 土器가 韓

이들은 질그릇
과 비슷한 것으로
서 六世紀頃에 유
행된 類形이다.

Ⅲ 靑灰色 系容器

以上과 같이 硬質과 軟質 두 종류가 있으나 이 時代에 主流를 이루고
있었던 硬質灰陶가 漢四郡設置를 계기로 韓半島로 普及됨에 따라 아직
까지 原始性을 탈피하지 못하던 韓國의 初期鐵器時代의 土器製造技術의
革命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에 제작되었던 限定된 容器的 種類와 形態로 부터 多樣
하게 製造되는 契起를 마련하였으며 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곳이 百濟였다.

한편 그릇 表面에 釉를 입힌 陶器를 除한 漢代의 瓦製明器는 거의 軟質
灰陶이다. ⑭

漢代에 이르러는 傳統的인 靑은 黑色을 띤 灰色系의 實用的인 陶器가
많이 生産되었다. 表面에는 繩蓆紋을 印紋하였고 質은 粗質이며 殷周時
代를 거쳐 秦·漢代에 이르러 다시금 一段의 發展을 보여 貯藏、煮、沸
또는 飲食을 담는 目的으로 壺、鉢、高坏、甌 같은 種類가 생산되었다.

寧郡 珠山面 倉岩
里이며 같은 系統
의 것이 南原郡 阿
英面과 馬山里 二
區 圜石式古墳等
에서 발견되고 있
으니 이들은 甕棺
類로써 百濟初期
前後로부터 五世
紀까지 계속된 容
器이다.

四、坏

五、長頸球形 平底壺

半島에 出現하기 始作한 것은 初期 鐵器時代로 推定하고 있다.
이 系統의 土器 表面은 繩紋 혹은 格子紋의 印紋으로 裝飾되어 있다.
繩紋 혹은 格子紋의 印紋이 最初로 쓰인 곳은 中國初期 新石器時代인
西樵遺蹟 즉 廣東省 南海의 西樵山에서 磨製石器和 함께 出土된 赤色 或
은 黑色의 바다 흙으로 만든 土器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廣東省
東興의 馬蘭咀具塚에서도 紅色 혹은 黑色의 色調에 紋樣은 主로 繩紋을
드물게 蓆紋과 刻紋으로 裝飾하고 低溫으로 구운 土器가 발견되었다.
典型的인 繩紋은 仰韶期에 紅陶과 灰陶系에서 볼 수 있으며 小屯期에
는 格子紋이 시작하였다. 小屯은 殷의 首都였던 곳으로 이 곳에서 盛行
된 文化를 一名 殷文化라고 한다. 殷文化의 所産인 土器는 赤色으로 구
워지고 있으나 典型的인 것은 灰陶인 것이다. 多孔質의 일반적인 灰陶
는 물이나 술을 貯藏하는데 이상적인 그릇으로 널리 利用된 듯하다.
이 時期의 土器는 軟質이 主流를 이루고 있었으며 春秋期에 이르러서는
泥質灰陶가 出現하였다. 泥質灰陶의 出現은 燃料의 절약으로 廉價로 生
産된 그릇이며 實用的인 것보다는 副葬用으로 發展을 보게 되었다.

百濟地域에서 漢式燔造術에 영향을 받아 제조된 靑灰色系 硬質土器의 初期樣式은 漢江流域 沿岸에 位置한 風納里 初期 土城址를 비롯하여 可樂洞·石村洞·芳荑洞 그리고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등의 여러 遺蹟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器形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 遺蹟에서 發見된 土器 종류로는 短頸平底小壺, 球形壺, 廣口卵形圓底壺, 二重口緣壺, 臺付壺, 高坏, 短頸平底瓶 등 七種의 硬質系와 黑色磨研土器인 短頸平底壺, 環形瓶, 短頸長胴壺, 盤 등의 四種과 灰陶인 扁形水瓶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漢江流域에서는 改良된 그릇의 出現은 赤褐色土器 보다는 四種이 많은 十四種이 發見되었지만 單一色을 띠고 있는 器種으로는 赤褐色系가 우세하다.

한편 百濟의 首都와 文化의 中心이 錦江邊으로 移動한 이후의 器種의 수는 增加現狀을 보인다. 公州와 扶餘를 中心으로 周邊地域에서 發見된 器種으로는 扁球形圓底壺, 球形壺, 臺付壺, 卵形圓底壺, 雙耳付短頸壺, 有蓋三足坏, 短頸平底瓶, 有蓋短頸壺, 器臺, 把手付小壺, 把手付小鉢, 甌, 橫瓶, 長頸壺, 高坏, 特殊土器, 骨壺, 陶硯, 自然釉線文四耳壺 등의 十九種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扶餘보다 더 南下하여 萬頃江과 榮山江 지역에서 나타나는 器種은 扁球形圓底壺, 球形壺, 卵形圓底壺, 有蓋三足坏, 短頸平底瓶, 有蓋短頸壺, 長頸壺, 高坏, 有蓋坏, 甌 등의 十種으로 감소되는 現象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 새로운 器種이 增加되고 있다. 이와같이 靑灰色 및 黑色系 土器가 漢城都邑地인 漢江地域보다 錦江流域으로 이전하면 器種의 增加와 赤褐色土器의 利用이 減少되는 점은 注目된다.

우선 漢江流에서 出土된 土器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一、短頸平底小壺

瓦質에서 陶質로 變化하는 과정에 있는 軟質直口短頸으로써 廣肩扁球形平底의 그릇 모양을 갖추고 있다(높이 一〇cm 胴徑 약 一五cm). 肩部에 刻線斜格子文을 裝飾하였고 石村洞과 法泉洞에서 發見되고 있다. 이



圖 26. 壺 (忠清南道扶餘郡草村面素沙里A號墳出土, 公州師範大學博物館)



圖 27. 土器瓶 (서울 芳荑洞五號墳出土)

와 같은 모양은 樂浪古墳에서 發見된 土器와 銅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二、球形壺

壺(圖 26) 球形壺는 百濟全域에 걸쳐 發見되

며 軟質과 硬質이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球形의 中形壺로써 밑은 둥근 것이 많으나 平底에 가까운 것도 있다. 口緣은 짧고 外反한 것과 直口短頸의 두가지가 있다. 外面裝飾은 格子紋 平行條線紋을 彫

刻한 수대로 그릇벽을 단단하게 한 흔적이 남아 있고 배의上部에는 근개질로써 고른 흔적이 있는 것이 많다.

높이는 一五cm ~ 二〇cm 이고 可樂洞, 石村洞 등지에서 發見되고 있다.

三、廣口卵形圓底壺

배가 좀 긴 丸底의 大形壺로써 목에서부터 外反되는 百濟初期 土器의 한 基本形을 이루고 있다. 대체로 無紋이고 表面處理는 근개로 다음은 것이 많다. 石村洞에서 發見된 것은 格字文과 平行條線文을 刻한 수대로 두들겨 裝飾하였으며 華城 白谷里 것은 繩蓆紋으로 裝飾하였다.

四、臺付壺

直立口緣을 갖춘 壺에 臺를 단 것으로 臺中央部에 一條의 突線帶가 돌러있다. 漢江邊에서는 發見例가 매우 드르나 石村洞에서 出土되었다.

五、短頸平底瓶(圖 27)

細頸瓶形 土器로써 器身은 廣肩球形、혹은 撫肩下膨의 것이 있다. 물



圖 28. 高杯 (서울 芳莢洞 4 號墳出土)



圖 29. 二重口緣壺 (서울 江東區 可樂洞 2 號墳出土)



圖 30. 二重口緣壺 (忠南 扶餘 出土)

래를 사용하면서 表面 처리는 써리질 (맨손으로 그릇벽을 쓸어 올리는 方法)하거나 근개 혹은 흙칼로 밀어올린 흔적이 보이며 밑으로 내려갈 수록이 수법이 적어지는 점으로 보아 이는 질재기를 타람질(Colling)한 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灰青色의 硬質이다.

높이 一一·九cm, 胴徑 一二·八cm, 底徑 八cm, 口徑 六·六cm

六、高坏(圖 28)

圓底坏形 土器에 圓錐形 臺足을 단 器形으로써 臺足이 짧고 장식이나 透孔이 없으며 軟質이고 有蓋式、無蓋式이 있다. 蓋는 頂上에 나팔形 鈕를 달았으며 外緣은 모를 죽였다.

蓋高 五·二cm, 徑 一一·五cm,

坏高 五·二cm, 徑 一一·五cm, 坏高 五·〇cm, 徑 一二·一cm, 底徑 七cm 以上の 六種의 灰青色系軟質 혹은 硬質 土器가 漢江을 中心으로 製造되어 왔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日常生活의 必需用器라고 하기보다는 貯藏用 혹은 祭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錦江地域인 公州와 扶餘 등지에서 發見된 灰青色系軟質 혹은 硬

質系の 土器를 보면

一、扁球形圓底壺

直口短頸이면서 약간 外反되고 배는 옆으로 퍼지고 어깨 등부분은 평 퍼짐하며 밑은 圓底로써 납작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릇벽은 아래썩기 한 후에 繩蓆紋 혹은 格字紋을 彫刻한 수레와 도개로 벽을 실하게 두들겨 단단하게 다듬질 한 후에 胴體 中下로부터 위로 數條의 橫線帶를 들렀다. 또한 어깨부분에는 二~四個處에 突起를 붙였는데 이는 牛角形 把手의 退化樣式인 듯하다.

이들은 軟質에 灰色 혹은 灰青色을 들어내고 있으며 (高 二一·四 cm, 口徑 一四·四 cm, 胴徑 二八·四 cm) 扶餘 草村面 素沙里와 公州地域에서 出土되고 있다.

二、球形壺

공과같은 球形이녀 直口短頸의 것도 있으나 短頸外反口緣을 가진 것도 많으며 밑은 圓底가 많지만 간혹 平底의 것도 있다. 表面에는 格字形을 彫刻한 수레로 打壓한 것과 근개로 整理하여 고른 흔적이 있고, 高溫에 구워낸 까담에 어깨는 綠色·褐色 등의 自然袖가 입혀진 경우도 있다. (높이 二四·五 cm, 口徑 一二·二 cm, 胴徑 二五·一 cm) 물 술 등의 液體를 저장 보관할 수 있는 그릇이며 百濟全域에서 卵形土器와 같이 發見된다.

三、二重口緣壺(圖 29·30)

直口高頸의 圓底土器로써 頸部中央에 좁은 테를 달아 테 위의 무은 짧다. 頸部를 除外한 全面에는 格字紋의 수레로 두들겼고 어깨와 목의 境界部에 鋸齒紋을 裝飾하였으며 어깨 四곳에 稜과 같은 돌기를 달았다. 이 容器는 骨壺로 推定되는 葬器이다(높이 一八 cm, 口徑 一一·九 cm, 胴徑 二二·四 cm). 可樂洞二號墳、扶餘素沙里(圖 30)、公州南山里

등에서 出土된다.

四、臺付壺

器身은 球形이며 外反直口形이고 몸과 같은 높이의 圓錐形 臺를 달았다. 臺는 밑이 넓은 나팔형으로 바닥에서 약간 위에 二條의 隆起線이 둘러 있는 위쪽에 五개의 三角形의 透窓이 있다.

또 口緣部에 一條의 突起帶가 둘러있으며 器臺에는 四개의 圓形透孔을 뚫은 것도 있다.

(高 二八·八 cm, 胴徑 一二·八 cm, 底徑 一九·五 cm)

公州 鳳安里 等地에서 出土된다.

五、卵形圓底壺

이系統은 廣口卵形圓底壺를 계승한 것으로 短頸外反口緣에 圓底이며 橢圓形의 器形이다. 질재기로 塔狀상기(Colling)한 후 도개와 수레로 成形한 다음 근개로 그릇표면을 고루 整理하여 無紋의 器表를 이루었다. 작은 것은 三〇 cm 내지 一 m 에 가까운 것도 있다.

이들은 器臺에 얹히어 供獻用壺로 發見되는 경우도 있고 甕棺으로 使用되어 半球形鉢로 덮은 것도 發見되었다. 忠淸南道 論山郡 陽村面 新興里에서 出土된 것은 高三六·八 cm, 口徑 二二 cm 이며 公州郡 利仁面 鳳亭里、扶餘郡 扶餘邑 鹽倉里에서는 超大形이 發見되었으며 陵山里에서 發見된 바 있다.

六、雙耳付短頸壺

漢江地域에서 볼 수 있었던 赤褐色 軟質의 雙耳壺系를 따른 것으로써 大壺로써 廣口에 口緣部가 外反하고 短頸이며 器腹 左右에 各各 一個의 環狀形 손잡이가 橫으로 달려있다.

器底는 平底로 灰色의 軟質土器이며 表面에는 자리文으로 全面을 裝飾하였다. 이 그릇모양과 손잡이를 붙인 樣式은 마치 現代 京畿道地方에서 쓰이고 있는 甕器와 질그릇 모양과 類似한은 注目된다.



圖 31. 有蓋短頸壺 (忠南保寧郡態川面九龍里出土)

圓底 혹은 平底의 中形短頸壺에 꼭지달린 杯蓋와 같은 모양의 뚜껑을 덮은 것이 있다. 壺의 바닥 혹은 粘質의 질을 사용하여 높은 온도로 구운 灰黑色硬質로 어깨가 넓으며 입은 直立短頸의 그것이다. 질재기



圖 32. 雙耳懸垂壺 (忠南瑞山郡大山面大山里出土)

이는 甕棺으로 使用하였던 一雙의 그릇으로서 器高는 三·一 cm、口徑 二·三 cm 底徑 一·八 cm、最大腹徑 三·五 cm 是 된다. 公州 南山里에서 出土되었다.

七、有蓋短頸壺(圖 31)

로 타래쌓기한 후 도개와 수래로 內外에서 두들기면서 甕을 대강 整理한 다음 근개로 表面을 고르고 胴部에 二條의 橫線과 어깨부분에 一條의 線紋을 두른 사이에는 근개질에 의한 細線이 보인다. 그리고 胴部와 肩部에 重弧連續文으로 裝飾하였는데 이와 같은 그릇은 百濟後期에 많이 보인다.

全體高 一九·八 cm、壺高 一四·六 cm、胴徑 一八·八 cm 이며 出土地는 忠南 保寧郡 態川面 九龍里이다.

八、長頸壺

球形에 圓平底의 壺身에 길고 큰 圓筒形의 V字形목을 붙인 것으로 頸部에 二條의 낮은 山形突帶를 두어 三區로 區分한 中間下段에 二條의 波狀文을 각각 들렸으며 上下區에는 一條의 波狀紋을 들렸다.

身高 一一 cm、全高 一八 cm 이며 發見地는 忠南 錦山郡 富論面 倉坪里이다.

九、把手付小壺

小壺形 或은 鉢形의 한 편에 가느다란 질재기로 耳形 손잡이를 달았다. 어깨부분에 一段의 凸線帶를 돌리고 그 위로부터 좁아지면서 짧은 頸部를 直立시켰다. 물레를 使用하였고 몸과 口部分은 세리(손빔)로 올렸으며 바닥은 손가락으로 여러번 문질러 調整하였다. 表面色은 灰靑의 硬質로 높이 一一·五 cm 口徑 一〇·三 cm、底徑은 九·五 cm 이다.

發見地는 忠清南道 論山郡 陽村面 新興里이며 이와 類似한 것이 慶州 地方古墳에서 적지않게 出土되고 있다.

一〇、雙耳懸垂壺(圖 32)

直口短頸의 圓底小壺로써 左右에 牛角形의 귀를 달았으며 귀중앙에 從孔을 뚫었다. 높이 九·五 cm、胴徑 一五·三 cm、口徑 一四 cm 이며 硬質에 灰色表面이고 全面이 無文이다. 이는 懸垂甕일 수도 있으며 骨壺일 可

能性이 있는 容器이다.

忠淸南道 瑞山郡 大山面 大山里 燕巢山과 扶餘附近에서 出土된 바 있다고 하며 扶餘 鎭은 壺身에 繩紋을 裝飾하였다 고 한다.

一一、有蓋三足杯(圖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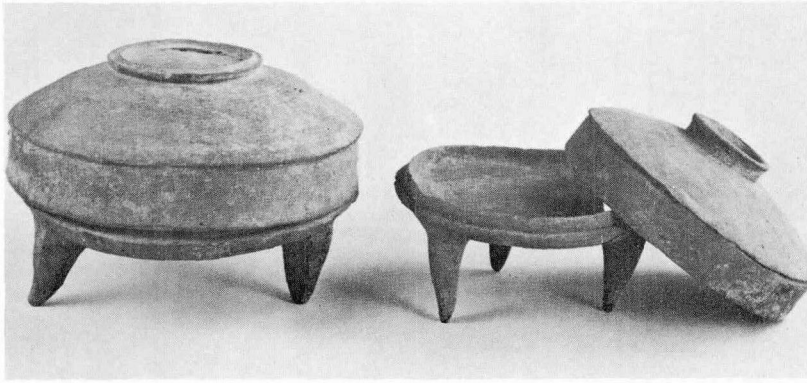


圖 33. 有蓋三足杯

直立口緣에 두 평을 받기 위한 一段의 턱을 마련한 杯形에 底面에는 三

개의 짧은 角形足을 붙인 百濟 特有的 土器이다. 마다 흙속에 모래가 若干配合된 것으로 높은 온도로 구워낸 硬質土器이다. 表面色은 灰青色과 灰白色을 띠고 있는 것이 많다. 蓋는 등 중앙에 卍字가 달린 것도 있으며 달리지 않은 것도 있다. 卍字는 頂上部에 鉢의 口를 축소한 것 같은 形과 단추 모양의 二種이 있다.

이 系統의 土器는 公州時代以後부터 나타난 特殊한 器種으로 古墳으로부터 發見할 때 卍字가 없던 出土되기도 한다. 이는 보통 높이 一〇cm, 口徑 一一cm이며 忠南 保寧郡 熊州面 九龍里 및 大川邑를 비롯하여 公州, 扶餘, 忠南連山表井里, 全北益山金馬, 京畿道 華城郡 日旺面 三里 등지에서 出土된 바 있다.

一二、高杯

高杯도 두 평받이를 구비하고 높은 다리를 갖춘 無文蓋形式과 有文蓋를 갖춘 短脚形式의 二種이 있다. 忠南 錦山郡 蕉里와 倉坪里에서 發見되었는데 後者は 두 평이 결실되었으나 同만한 盆形에 나팔형의 長脚을 달았고 三角形 透窓을 三處에 뚫었으며 前者는 두 평 頂上 나팔形鈕를 달고 線刻 鋸齒紋, 半圓形紋으로 裝飾하였다. 이 高杯는 작은 短脚이 있고 杯部에 二重圓文의 道장을 찍었으며 脚部에 長方形의 透窓을 뚫었다. 이 樣式은 長頸壺와 같이 伽倻, 혹은 新羅式 高杯와 비슷하다.

一三、把手付碗

口徑이 底徑보다 넓으며 直立한 口緣에 一條의 突起線帶를 돌리고 그 帶面에 連珠文을 等間隔으로 裝飾하였으며 器身 한쪽에 다 략취모양의 손잡이를 달았다. 마다 높은 口徑에 비해 水飛 한 듯한 것을 사용하여 卍字(Hand Make)로써 器壁을 얇게 할 뿐 아니라 高溫에 燒成한 灰青色의 硬質土器이다.

一四、蓋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손잡이가 달린 것에는 側面에 牛角을 밑으로 向하게 붙이고 口緣部가 얇은 硬質이며 牛角손잡이가 붙은 上端의 該當位置에 一段의 턱을 돌렸다. 連山出土. 손잡이가 없는 蓋은 요즘 民家에서 쓰고 있는 돌로만은 절구같은 形인데 위가 넓고 밑은 좁아지면서 잘룩한 원통형 臺가 있다. 마치 잔에 접시가 달려있는 高杯形蓋이다.

또 다른 形態의 蓋은 구경이 넓으며 곧은 몸에 납작한 평저의 작은 蓋으로 半環形의 손잡이를 달았는데 잔 밑과 손잡이 밑이 直線을 이루고 있으며 손잡이 上端은 一段의 턱을 이루었다. 물레를 사용하였으며 卍字로써 그릇벽을 얇게 처리한 灰黑色 硬質이다. 口徑 六cm, 높이 四·八cm, 底徑 三·五cm 連山新興里出土.

一五、盒

물레를 사용하여 고두마리로서 써리수법으로 그릇벽을 얇게 하였다.鉢形이고 平底에 입술은 안으로 오무렸으며 口緣 밑에 一段의 턱으로 뚜껑을 받도록 하였다. 뚜껑은 꼭지가 없는 無文으로 등은 평평하다.精選된 바닷질을 사용한 灰黑色 硬質이다.

公州 南山里 出土。

一六、橫口壺(장구)

胴部 中央上部에 短頸의 입술을 外反시킨 예가 많으며 간혹 直立口緣을 갖춘 것도 있다. 그릇 표면에 紋樣은 細繩紋을 打捺한 것과 無紋의 것이 있다.

灰白色 或은 灰黑色에 硬質이 많다.

一七、器臺(坩臺)

器臺를 坩臺라고 하며 일명 그릇받침이라고 부른다.



圖 34. 器臺 (忠南 論山郡 陽村面 新興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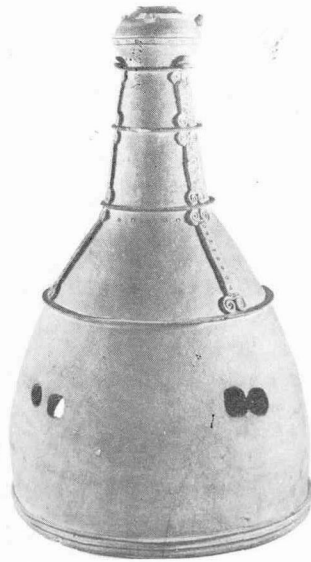


圖 35. 器臺 (忠南 公州郡 宋山里 六號墳出土)



圖 36. 瓶 (忠南 保寧郡 熊川面 九龍里 出土)

이것은 대체로 高坏形과 또 하나는 脚臺形으로써 圓底容器에 圓錐形의 器足を 구미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高坏形 坩臺(器臺)

이는 鉢形인 坏部는 매우 크며 이곳에 부착되어 있는 臺는 杯보다 一倍半정도 높으며 臺底徑과 杯徑과는 비슷한 넓이여서 마치 長鼓形 같다. 이 위에 圓底壺 혹은 坩을 安置할 수 있도록 計劃된 그릇이다. 이器類의 代表的인 例는 論山郡 陽村面 新興里에서 出土된 것을 들 수 있다.

2. 脚形器臺(坩臺)(圖 35)

나팔모양의 脚臺 혹은 脚足으로써 마치 포도주甕을 꺼꾸로 놓은 것 같은 모양의 圓筒形 그릇으로써 百濟時代 作品중 代表的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公州宋山里 第六號墳에서 發見된 遺物중에 하나이다. 이는 現在 그릇받침이 缺失하였을뿐 足臺部分은 完全하다¹⁵⁾.

이 足臺의 構成은 臺部和 頸部 그리고 上部 등으로 三分되어 있다. 이 三部分을 明確하게 區分하기 위하여 목上端과 足臺下端에 걸쳐 輪帶를 둘러 四段으로 區分하였다. 어깨와 목 上端의 輪帶에 걸쳐 對稱되게 四條의 고사리紋을 縱으로 裝飾하였으며 그 고사리紋은 帶形이고 上下兩

端에 이르러 左右로 꼬부렸다. 胴部에는 四處에 각각 二個씩의 圓孔을 뚫었는데 前後의 것은 붙어 있으며 左右의 것은 떨어져 있다. 口上端輪帶 위에는 밀의 꼬사리 紋과 연결해서 각각 一個씩의 방울을 달았으며 上部는 鼓形이다. 이 鼓形의 腹部 中央에 聯珠紋이 있는 장식帶를 돌리고 上端에는 一段의 턱을 이룬 隆起帶를 두른 밑에 다시 방울을 대칭되게 裝飾하였다. 그리고 下端에 있는 二條의 隆起帶를 除外한 隆起帶에는 裾齒紋을 裝飾한 華麗한 器臺이다. 高 六八·八 cm, 胴徑 四一 cm.

이 외에 公州邑 山城內에서 발견된 高三六·四 cm의 거의 完形의 것이 있으나 이는 매우 간단하고 그릇받이 器臺는 작으며 足臺는 배정도 크다.

한편 陵山里와 佳塔里 廢寺址에서도 器臺 破片들이出土되었다.

陵山里所在 傳百濟王陵群 地域에서 發見된 것은 器臺의 頸部以上이 缺失되고 宋山里器臺와 매우 흡사한 모양이다. 또한 佳塔里에서 出土된 것은 頸部 以上만 남았으나 그릇받이 器臺는 거의 完全하다. 上記 兩作品은 表面에 黃褐色의 釉藥이 입혀져 있었다.

以上の 資料를 통해 百濟器臺는 新羅와 伽倻地域에서 발견된 遺物과 비교하여 볼 때 우수하고 월등한 美感를 주고 있다. 이 器形은 祭器임은 勿論 馬韓時代의 宗教的인 儀式具인 蘇臺를 연상할 수 있는 作品이다.

一八、短頸平底瓶(圖 36)

이 그릇은 漢江時代에 이미 出現되었고 錦江期 이후에 특히 유행한 것이다. 細長한 목이 달리고 肩部가 가장 팽배해지고 平底이며 口唇은 一條의 홈이 있으면서 外反된 硬質의 灰黑色이다.

이는 繩紋을 彫刻한 수레와 도개를 사용하여 그릇벽을 고른 후에 써리 로써 목과 입술 부분을 만들었다. 바다 흙에는 간혹 黑色과 白色의 모래가 들어 있으며 속 살색은 灰黑色을 띠고 있는 것과 赤褐色을 띤 것이 있다. 保寧郡 熊川面 九龍里에서 出土된 것은 上廣下狹形으로 高二〇·

九 cm, 口徑 八 cm, 底徑 一·二 cm의 비교적 높은 병이고 錦山郡 錦城面 芭蕉里 出土品은 口緣部가 缺失되고 배가 부른 肩球形에 가까운 것으로 낮은 環形의 器臺가 달려 있다. 身과 臺가 접하는 위치에 方形의 孔이 六개 있다. 어깨에는 自然袖가 덮혔으며 二條의 平行線帶를 上下에 돌리고 밑에 二重의 연주紋이 並列되어 있다. 高一 cm, 胴徑 一四·五 cm, 底徑 九·五 cm.

一九、시루(甑)

短頸直立의 平底壺形土器로써 좌우에 環狀形 손잡이를 橫으로 附着하고 바닥에는 尖形具로 뚫은 圓孔 數十個가 뚫려 있다¹⁶⁾. 表面에는 繩紋과 格子紋을 裝飾하였으며 色은 灰青色인데 格子紋은 그릇의 밑 부분에만 있으며 繩紋은 그 이외의 부분에 施紋하였고 繩紋을 施紋한 위에 橫線帶 數條를 돌렸으며, 本來는 蓋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루의 모양은 발달된 시루型和는 다른 器型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注目되며 出土地는 禮山郡 大興里이다.

二〇、등잔(燈臺)

平底에 낮은 그릇이고 그릇속 중심에 圓錐形의 突起部가 있는 것이 一般形인데 이를 따르고 있다.

口緣은 약간 外反하고 있는 것과 口緣部 주위에 段을 형성하고 口唇部를 內傾시킨 것 등이 있다.

二一、陶硯(圖 37)

陶硯은 硯身에 臺 또는 脚이 달린 것으로 뚜껑이 있는 것과 당초부터 뚜껑없이 만든 二種이 있다. 硯身의 形態는 硯堤가 內傾되고 硯岡에 약간 높은 段이 둘러져 小堤가 형성되었으므로 硯面에 墨水를 많이 저장하게 된다. 硯身에 붙은 臺는 圓桶臺, 眼象臺, 透窓臺의 三種이 있다.

또한 硯身에 붙은 脚에는 幾何學紋, 蓮華紋, 獸脚紋, 蓮花紋 등을 裝飾하였다¹⁷⁾.

以上과 같이 形態와 紋樣이 갖추어져 있는 陶硯이 韓半島에서의 出現은 漢文化를 多量輸入하던 三國時代를 前後한 시기이다. 그러나 百濟時代에 있어서는 錦江時代 이후에 비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특히 扶餘期 이후 작품으로 推定되고 있다. 作品의 紋樣과 또는 出土 狀況을 보아 이들은 生活根據地인 住宅址, 官廳址 혹은 寺院과 關係되는 곳에서 發見되고 있음이 他土器와 區別되고 있다. 卽이 陶硯은 儒敎 또는 佛敎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뿐 아니라 社會的으로 百濟末期의 貴族社會에 流行된 文具施設과 書畫의 盛長과 관계 깊은 것으로 富蘇山寺址出土 壁畫와 窺岩里出土 紋樣磚을 통해 짐작되는 바이다. 陶硯의 形態와 器型은 당시에 특별히 개발 유행을 보아 온 器臺와 三足器의 影響을 받아 이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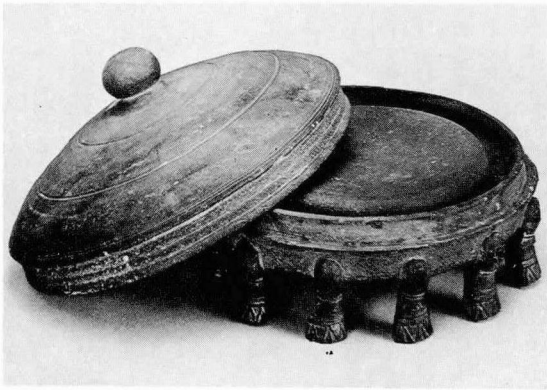


圖 37. 陶硯 (扶餘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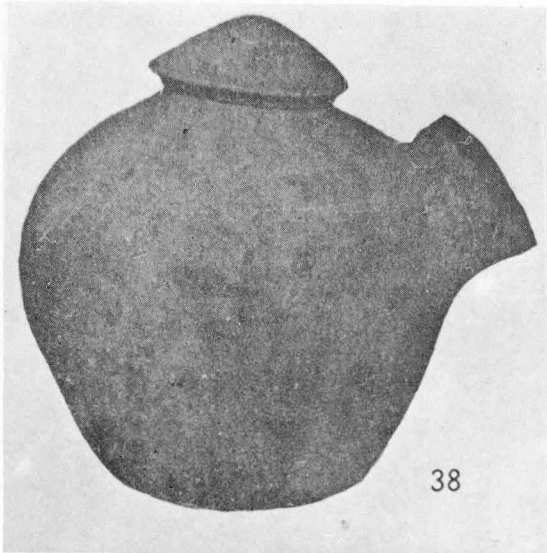


圖 38. 注口土器 (扶餘出土)



圖 39. 雙注口土器 (扶餘出土)

것으로써 扶餘時代以後 급격히 發達하였다. 현재까지 발견된 陶硯중 가장 완전한 百濟 硯은 錦城山 朝王寺出土品으로 高一五·八cm, 蓋徑二〇·一cm, 硯身徑二三·三cm이며 灰白色硬質의 多足圓硯面이다.

二二、注器(圖 38·39)

注器는 器身양측에 注口를 낸 것과 한쪽에만 있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두 平底이다. 바닥은 모두 精選된 것을 사용하여 高火度로 燒成된 硬質이고 灰白色 혹은 灰青色을 띠고 있다¹⁸⁾.

注口가 양쪽에 있는 것은 器身 좌우에 턱이 달린 注口孔을 두고 注口孔이 달린 중간 즉 器腹양측에 多角形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肩部는 三段을 이루었으며 頂上에는 圓口가 設置되어 있는데 蓋部 혹은 頸部를 缺失한 것이다.

또다른形態의 注器는 한쪽에만 注口孔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注口는 肩部 윗쪽에 짧은 圓筒形 注口孔이 부착되어 있으며 頂部에는 꽃봉形の 커다란 꼭지가 있다. 이 꼭지는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土器는 무엇에 썼는지 알 수 없다.

二二、骨壺(圖 40~42)

死亡者의 遺骨을 藏骨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기 보다는 日常生活 容器로 사용되었던 것을 그때 그때 선택해서 사용한 것 같다. 扶餘에서 발견된 예가 많으며 四종으로 대별되고 있다.

其一是 平蓋短頸平底壺形이다. 形態는 多樣하나 直立短頸의 廣肩平底壺에 寶珠形鈕가 있는 平蓋를 씌우도록 되어 있다. 扶餘邑 軍守里、雙北里 北浦、新里 등지에서 발견되며 特別 雙北里에서 발견된 骨壺 속에 서는 隋의 五銖錢 十一枚가 伴出되었으며 雙北里 北浦에서는 唐의 開元通寶 二枚를, 新里에서는 五枚가 나왔다고 한다. 開元錢은 唐의 高宗武



圖 40. 骨壺 (忠南扶餘郡扶餘邑雙北里出土)



圖 41. 骨壺 (忠南保寧郡態川面九龍里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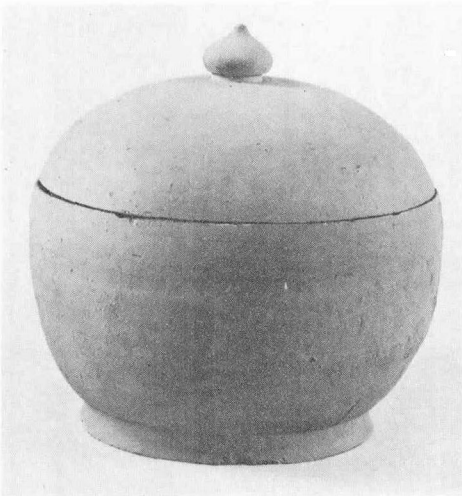


圖 42. 骨壺 (忠南扶餘郡草村面莘岩里出土)

德四年(621年)에 初鑄된 것이다.

其二是 蓋盒形式이다. 蓋는 寶珠形鈕가 있는 半球形印籠蓋形式이고 身은 半球形으로써 高臺가 있으며 蓋와 몸의 接合은 兩者를 密着시키는 金屬製盒을 연상할만치 치밀한 作品이다. 바닥쪽은 水飛하였고 물때를 사용하였다. 軟質에 灰色을 띠고 百濟土器에서도 보기 드문 結작품이다.

高 二〇・五cm, 身高 一二・二cm, 口徑 二〇・六cm, 底徑 一五cm, 蓋 高 九・五cm.

扶餘 草村面 莘岩里 出土.

其三是 碗과 壺의 復合式이다.

壺는 一般的인 廣口長胴壺를 轉用하였다. 扶餘邑 中井里 灰葬墓群 出土.

二四、便器(圖 43・44・45)

二重口緣의 圓底壺에 짧은 三足이 달린 것과 橢圓形 口緣部인 虎子形

器 등의 四種을 들 수 있다.

其一은 圓底壺에 三足이 달린 것으로 肩部에 五個의 꼭지형 귀가 等間隔으로 붙어 있고 肩部에서 腹部까지는 繩文 바탕에 繩線帶가 둘러져 있으며 器底에는 格子文을 裝飾하였다. 灰黑色의 硬質이다¹⁹⁾.

其二는 圓形平底의 타원형 口緣部이고 器身 左右에 環形 손잡이를 橫으로 부착하였다(圖 44). 中央이 낮고 前後가 若干 높아진 面에 口緣은 陰刻線 二條를 돌렸고 손잡이 크기는 三指가 들어갈 수 있을 程度이다.

이 土器는 百濟土器중 異形으로써 生活必需容器로 現代 醫科用 便器와 類似하다²⁰⁾.

全長 四〇cm, 幅 一八cm, 灰青色 軟質土器이며, 扶餘 軍守里에서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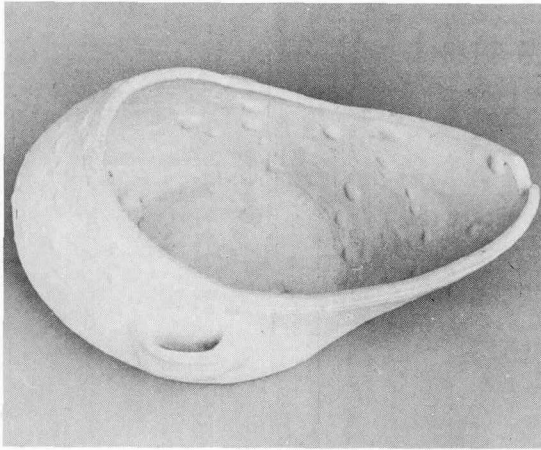


圖 43. 便器 (忠南扶餘郡軍守里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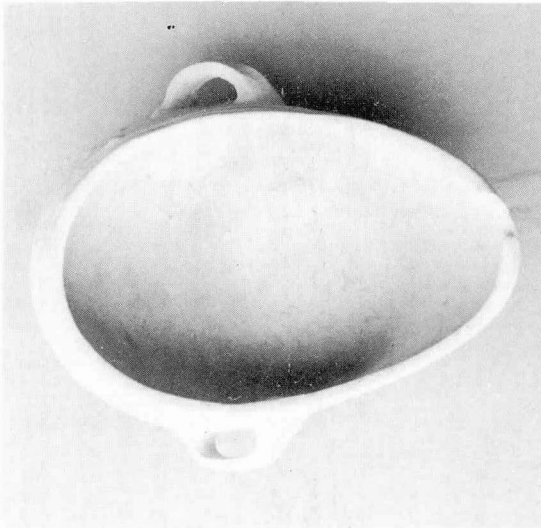


圖 44. 便器

其三 虎子土器(圖 45)

虎子形土器는 中國古代의 虎子라는 容器와 관련되는 男性用 便器로 推定된다. 西京雜記에 의하면

漢朝以王爲虎子以爲便器 使侍中執之行事以從

으로서 알 수 있다. 扶餘에서 發見되는 例가 많으며 軍守里에서 出土된 것이 거의 完形으로 머리가 위를 向해 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앉은 자세를 취했고 虎眼이 表現되었다²¹⁾.

二五、自然袖線紋四耳長頸壺(圖 46)

平底이고 어깨위에 원추형의 긴 목이 달려있으며 口唇에는 一條의 홈이 있으면서 外反되었다. 목에는 細陰線으로 波狀文 二條가 둘러져 있고



圖 45. 虎子土器

器身에도 肩部에서 底部 가까이에 걸쳐 거리를 두면서 五條의 平行陰線帶를 돌리고 그 사이 사이에 波狀文을 施文했다. 어깨 四處에 부착된 귀에는 圓孔이 뚫려있으며 靑灰色 硬質로 黃褐色釉가 施釉된 것으로 보인다.

高 四三 cm、口徑 一九・三 cm、底徑 一四・五 cm。

以上으로써 百濟時代중 錦江을 中心으로 發展하던 시기에 燒成된 土製容器는 多樣하며 特別히 生活用器로써 炊事用器、貯藏容器、祭祀用器、文房具、便器 등으로 開發한 사실을 보았을 때 百濟後期 社會發展과 生活相을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기술의 發達로 色彩를 띤 施釉陶 또는 磁器類를 살펴 보고자 한다.



圖 46. 四耳長頸壺 (扶餘出土)



圖 47. 綠釉器台 (扶餘邑陵山里出土)
(扶餘博物館)

一、施釉陶(圖 47)

扶餘時代 후반에 이르러 綠釉陶의 生産이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施釉陶로는 器臺、脚付鉢、蓋、長頸瓶、圓面硯、받침盞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綠釉 받침盞이다.

이는 저 유명한 武寧王陵에서 발견된 銀製받침盞과 유사한 모양으로 약간 黃色이 도는 잔인데 綠釉가 많이 벗겨졌고 뚜껑과 잔받침이 따로 떨어져 만들어졌다.

全高 一二 cm、蓋高 一一・二 cm、臺高三・六 cm、盞口徑 一〇 cm、臺上徑 一九・八 cm、臺徑 一四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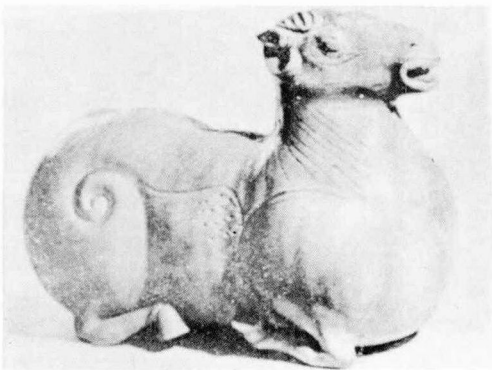


圖 48. 靑磁羊形明器 (南京附近東吳甘露元年(二五六 A・D)墓出土)

二、磁器

公州扶餘 시대에는 아직 磁器의 생산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中國南朝와 交流를 말해주듯 初期 華南地方의 靑磁가 二個 遺蹟으로부터 發見되었다.

其一是 天原郡 城南面 花城里 花院에서 發見된 越州窯靑磁 二點이다. 二點중 하나는 天鷄壺이고 다른 한 점은 盤口壺이다. 이들과 類似한 것이 南京市 象山의 王氏墓群중 第五號墓에서 發見되었고, 이 墓에서 함께 發見된 墓誌에 의하여 三五八年에 죽은 王閔의 墓임을 알 수 있었다. 이 天鷄壺와 盤口壺가 出土된 곳에서는 百濟土器가 伴出되었고, 江原道原城郡 法泉里에서도 靑磁羊形器가 發見되었는데²² 이와 유사한 것이 象山の 第七號에서 發見되었다(圖 48).

其二是 武寧王陵의 出土品을 들 수 있다. 廣口六耳壺, 盤口長頸四耳壺, 燈臺等이 있는데 이들은 南朝時代의 初期越州窯系 靑磁들이다.

이상의 百濟시대 토기를 통해 漢江유역으로부터 錦江유역으로 政治文化의 中心이 이전함과 동시에 社會的인 변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생활도 複雜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球形壺, 卵形圓底壺, 短頸平底瓶 같은 漢江期의 것들 繼承하는 한편 百濟的 器形으로서 변화定形된 有蓋三足坏, 器臺, 有蓋短頸壺, 注口壺등을 生産하는 한편 佛敎와 儒敎의 成長과 함께 圓面硯, 藏骨器등이 만들어 졌다. 뿐만 아니라 祭器의 出現, 自然釉의 개발등을 보아 土製品의 새로운 進로를 개척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後期에 이르러 外國과 文化交流가 빈번히 이루어졌음을 짐작된다.

IV、器色의 思想的 背景

前述한 바와 같이 百濟土器의 器形、質、種類등을 살펴본 바이 곳에서 注目된 점은 質과 아울러 土器의 表面의 色이라 하겠다. 즉 漢江時

代와 錦江時代 이후의 土器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점은 前者에 있어서의 赤褐色系 土器가 主流를 이루고 있는 反面에 後者에 경우에는 黑色系인 灰靑色系統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表面 色素의 변화는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일반적으로 赤色系에서 灰靑色系로 바꾸어진 것은 土器 製作技術에서 나타난 現象이라 하겠으나 자세한 考察하여 보면 이는 技術에 앞서 宗教的인 信仰에서 나타난 現象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즉 赤褐色軟質系 土器는 百濟全期를 통해 發見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百濟文化圈에 限定된 것이 아니고 新羅에 있어서도 古墳에 埋藏된 遺物중에 一、二點의 赤色系土器가 包含되고 있다. 古代人들의 赤色系의 工藝品을 즐겨 葬禮儀器로 쓰는데 赤色은 一般的인 관념에 의하면 生命의 源泉이라 하며 혹은 밝음 즉 光明을 뜻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自然色으로서 生命의 源泉을 이루는 血液의 色素가 赤色이라는 점에서 生物體의 成長의 要素라는 것이며 아울러 太陽의 빛 또한 그 自體가 이와 같다는 것이다. 赤色은 審判의 象徴이기도 하며, 사랑의 表象이기도 하며 希望을 뜻하기도 하며 再生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데서 古代人들이 赤色을 意識하는 경향은 특히 光明과 生命의 根源이 될 것이라는 데서 이들은 赤色素를 神聖視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古代人들이 赤色을 神聖視하려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발생된 현상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이들은 이 곳에서 마침내 赤色系의 色素를 갖춘 工藝品을 神聖視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을까 한다. 즉 古代人들이 赤色을 神聖視하는 行爲는 이들이 天神께 바치는 祭物을 담는 그릇인 祭器의 色을 赤色으로 擇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行爲는 마침내 副葬品에 赤色系를 使用하였으니 이는 모름지기 死者를 光明의 世界에서 永遠히 安住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타난 所致가 아닌가 한다.

이 赤色은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밝음을 뜻하는 것으로 陽明한 곳을 神聖視하는 風習은 古代人이나 現代人들을 막론하고 共通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當時 百濟人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비롯하여 祖
上을 崇拜하는 風俗이 있어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보이는 建國初期부
터 壇과 廟를 세워 茶禮하였던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祭器에 對한 詳細
한 資料를 남긴 바 없지만 古代人들이 共通的으로 神聖視하려는 色素를
가진 祭器를 使用하였을 可能性이 있다 하여도 좋을 것 같다.

赤色인 밝음에 對하여 禮證에 의하면
明則有禮樂 幽則有鬼神

이라는 句節을 통하여 밝음 속에는 禮節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으나 어
두운 곳은 不安을 안겨주는 동시에 鬼神이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明 田汝成의 熙朝樂事에 除夕 人家祀先及百神……燃燈床下 謂之照
虛耗

라는 句節을 비롯하여 晉의 宗懷의 「荊楚歲時記에 夜燈炬火照井廁中則
百鬼走」라는 것을 보아 雜神이나 鬼神은 어두운 곳을 즐기고 밝은 곳을
피하려는 特性을 갖고 있음에 古代人들도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行爲의 裏面思想과 觀念은 어디까지나 自然主義思想에서의
發露라 하겠다. 自然主義思想의 환경속에서 生活하고 있는 이들의 生活
用器로 赤色系 容器를 즐겨 使用한 것은 善神에 의하여 기록된 食량을
人間에게 베풀어 준 것을 감사히 받아 담은 그릇이라는 觀念속에서 이
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赤色에서 黑色으로의 變化는 自然主義에서의 탈피에서 나타난 것으로
人間의 創造性을 發揮하게 된 것은 즉 赤色은 酸化焰에 의하여 기록된
自然色이라 하겠으나 黑色系는 環元焰에 의하여 生成된 人爲的인 작용
의 발로인 것이다. 이에 따라 人間과 接하는 森羅萬象이 神이나 天神에
의해 이룩된 것이므로 生活道具와 神殿에 供養하는 儀式具와는 區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으나 超人間的인 宗教가 보급됨으로써 生活用具와 宗
教用具의 구분이 필요하게 되어 마침내 一定한 形態의 祭器가 考案 開
發하게 되는 反面에 自然的인 色彩를 배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
을까 한다. 이와 같은 現狀은 漢江時代에 있어서는 재래부터 이어받은

祖上崇拜와 自然崇拜의 풍습이 이행되어 왔으나 漢江時代末부터 錦江時
代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思想과 宗教觀이 전파되어 儀式과 祭器의 典型
樣式이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聖水 或은 生命水를
보관하는 瓶의 必要性, 神과 人間이 通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술을 담
는 壺 혹은 甕의 제작, 神에게 받치는 떡을 만드는 시루, 또는 祭物을
담는 그릇의 器形에 있어서 일반 生活用器와 區別되는 높은 器臺등이 개
발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 登場된 祭器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容器와 區別되는
質이 약하고 연한 것을 使用하였던 흔적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漢江時代에 生産된 土器는 自然主義的인 관념하에서 祭器와 一般生活用
器의 區分없이 쓰여졌으나 錦江時代 이후에 이르러서는 社會分化和 權
威主義의 대두에 따라 자연히 節度와 規範이 요망되는 데서 生活用器와
特殊容器의 구분이 不可避하였던 것이다. 즉 社會階級과 宗教的인 表象
에서 特異한 形態의 祭器 및 儀器의 生産이 이루어졌으므로 自然히 貴族
과 庶民의 容器가 區分되고 色彩에 關係없이 새로운 形態의 器形이 製
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結 論

百濟土器에서는 表面色의 多樣性을 보이는 한편 器種의 多樣性도 보
이게 되었고 土器가 하나의 工藝品이니 만큼 用途에 부합되는 器形이 어
야 할 것이다.

鉢일 경우에는 알맹이 종류(粒體) 즉 곡식이나 밥같은 것을 담은 것으
로써 잘 얹어지지 않도록 安全하게 平底의 器形을 이루게 되고 甕일 경
우에는 液體를 담기 때문에 쏠거나 이를 마실 경우 완전히 흘러내리도록
V字形을 이르게 하였고 瓶일 경우에는 속에 담은 液體를 흘러내리지 않고
安全한 運搬이 가능하며 담은 것이 쉽게 쏟아지지 않도록 목이 길고 구
멍이 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여기 담은 술이나 식초, 꿀등을 保管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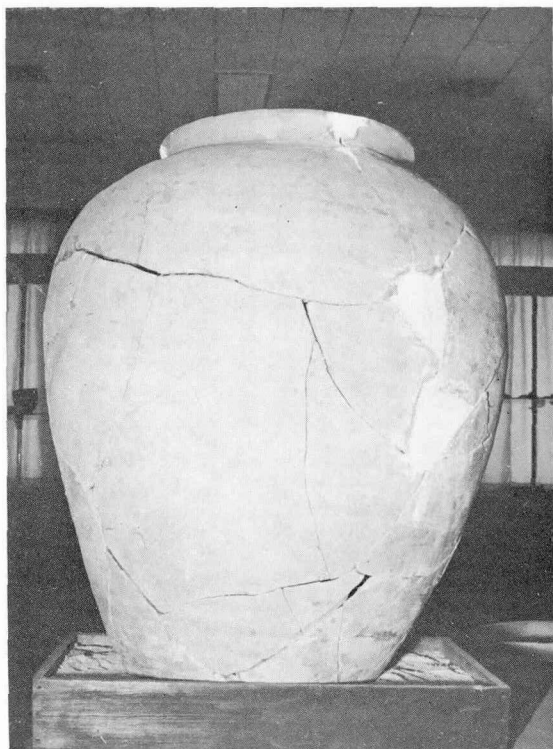


圖 49. 甕 (서울城東區九宜洞古墳出土)

데 공기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적게 하여 변질 또는 증발을 방지하도록 마련된 용기이다.

甕는 瓶과 비슷한 用途로 쓰이는 것으로 이는 장기간 저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量을 담은 容器일 것이고 長頸甕는 多量의 곡식이나 發酵物인 醬, 釀酒용재로 혹은 副食을 저장하며 이들은 地下에도 보관하도록 하였다. 地下에 묻을 경우 地面에 頸部가 露出되며 속에 담은 물진이 쏟아지지 않도록 목을 길게 마련하였을 것이다. 甕은 甕와 甔을 절충한 것으로 口緣과 어깨가 맞붙으면서 器身이 높은 것이다. 일찍이 九宜洞古墳에서 現在京畿道와 서울地方에서 널리 쓰이는 장독 또는 김장 김치독 같은 모양의 그릇이 발견된 점은 매우 흥미있는 것이라 하겠다(圖 49).

日常生活用器중에 있어서 貴族階級과 平民用器의 區分을 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註

- 1 藤澤一夫·「百濟土器·陶器」(世界陶磁全集、河出書房、一九五五) P、194에 의하면 陶質土器로 表記하여 土器表面이 靑灰色 또는 暗灰色을 띠며 硬質의 것을 가리키고 있다.
- 2 金元龍·「華城郡麻道面白谷里百濟古墳과 土器類」百濟研究 第二輯 1971. 尹世英·「可樂洞百濟古墳 第一號 第二號發掘調査略報」考古學 第三輯 1974.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 1974、1975、1976年度. 華陽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 1977 등의 論文을 통하여 漢江流域의 百濟文化를 밝히게 되었다.
- 3 金元龍·「春川校洞 穴居遺蹟과 遺物」歷史學報 第二十輯 1963.
- 4 金元龍·「原城郡法泉里石槨墓와 出土遺物」考古美術 120、1973.
- 5 金廷鶴·「幾何文土器文化」韓國의 考古學、河出書房 1972.
- 6 華陽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 第一次 P、17 1977.
- 7 前揭報告 P、16.
- 8 前揭報告 P、17.
- 9 前揭報告 P、18.
- 10 前揭報告 P、19.
- 11 前揭報告 P、20.
- 12 前揭報告 P、19. 世界陶磁全集 17 韓國古代篇 P、77、P、194 小學館 1979.
- 13 圓光大學校博物館 收藏.
- 14 鄭德坤·中國考古學大系 1、P、235~236、雄山閣 1974.
- 15 藤澤一夫·註 1 前揭書. P、201. 安承周·百濟土器의 研究 P、13 百濟文化 第十二輯、1979. 輕部慈恩·百濟美術 P、174 寶雲舍.
- 16 安承周 註 15 「百濟土器의 研究」(百濟文化第13輯) P、19.
- 17 藤澤一夫 註 1 前揭論文 P、197. 姜仁求·百濟陶硯에 對하여 百濟文化 第五輯 P、39~50.
- 18 安承周 註 15 前揭論文 P、18.
- 19 安承周 註 15 前揭論文 P、18.
- 20 安承周 註 15 前揭論文 P、18.
- 21 徐聲勳·「百濟虎子二例」百濟文化 第十二輯 P、123~127.
- 22 金元龍·註 4 前揭論文 P、9~10